

## [ 교육 ]

## 수시 2학기 논술 대비 이렇게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수능 외에 논술과 면접 준비도 계획을 해선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시 2학기 전형 논술고사마저 대학들도 있지만, 수도권 대부분 대학들이 10월 중순을 전후로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 기술·모의 문제 꼼꼼히 살펴라

올해 논술의 특징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통합논술이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점. 여기에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한국외대의 사례처럼 문과는 영어제시문, 이과는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도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대학들이 내놓은 모의논술을 보면 인문계열은 언어+사회, 자연계열은 수리+과학이 통합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며 “자연계열은 특히 교과와 관련성이 높은 문제들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수시 2학기 논술고사 경향에 따른 대비법을 알아본다.

## ◇ 반복 주제를 분석하라

논술고사에서는 종종 현대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선별적으로 출제된다. 그러나 ‘기본적’ 인 소양을 묻는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인문계열을 예로 들자면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깊이のある 테마들이 그렇다. 민주주의의 정치 질서, 자본주의 체제, 과학기술과 진보 등 주제는 각각 정치, 경제, 과학 분야를 대표해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자연계열에서도 수학과 과학의 주요 교과 단원, 이를테면 이산수학, 수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 운동학, 화학 반응, 생명 현상의 특성, 염색체와 세포 분열, 운동의 법칙, 별의 관측 등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제를 찾기보다는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반복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각 교과와 연결지어 분석해보는 공부가 필요하다.

## ◇ 깊이 있는 침착 지도 받아라

논술문 쓰기에도 공식이 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알면서도 안 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괴상적인 논술 학습만 반복한다면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논술 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변형한 장황한 제시문과 어려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논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출문제, 대학별 모의논술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통합논술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 논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이 작성한 논술문을 표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주는 것은 자연계열을 받았을 때 유익하다. 지도교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첨삭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도록 한다.

## ◇ 제시문 분석을 연습하라

제시문 분석은 논술문 쓰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중요성도 크다. 인문계열 수험생이라면 다양한 관점의 글로부터 하나의 단일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거나 뒤,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논제의 요구와 제시문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훈련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논제의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논제의 요구에 따르는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 논제에 맞는 논거를 구성하라

논술문의 필수요소는 논지와 논거다. 논지를 설정하고 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하는데, 이는 평소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논술문을 작성할 때는 논지와 논거를 분리시키지 말고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전개하도록 하며, 제시문을 재구성하여 논지를 세우도록 한다.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 제시문에 담겨 있는 개념, 논리 전개 방법, 현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논지를 구성하도록 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인문계열과 달리 논거가 비교적 간접적이므로 작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논거를 기초로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ju.co.kr

## 광주공고, 전문계고 교수법 대회 금상 힙쓸어

광주공고(교장 주규봉)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전국 전문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연구대회’에서 6개 중 2개의 금상을 힙쓸어 화제다.

8일 광주공고에 따르면 건축과 박태호 교사는 ‘살아 숨쉬는 집’을 주제로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현실적 문제를 제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을 맛보게 한 점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했다.



〈박태호 교사〉 〈성춘기 교사〉 〈공현철 교사〉

시·해결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광주에서 함께 출전한 전남공고 김광평 교사가 금상을, 금과공고 최희준 교사가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ju.co.kr

## 조선대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

한국어학당, 한글날 맞아 국제결혼 이주민·외국인 유학생 초청 행사

제562돌 한글날(10월9일)을 맞아 조선대 한국어학당(학과장 강희숙)이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 및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하는 한국어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9일 오후 1시20분 조선대 전자 정보공제 IT홀에서 열리는 ‘제1회 조선대학교 한국어 사랑 어울림 한마당’은 전남대 신상순 명예교수의 ‘한국어의 세계화’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

진다.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1명이 나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 5분간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는요’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조를 이룬 5팀이 참가,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게 된다.

‘옛날 옛적에’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 5명이 출신 국가의 신화나 전설, 민담 등 옛날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준다.

‘우리나라는요’ 대상에게 30만 원,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과 ‘옛날 옛적에’ 대상에게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조선대 평생교육원 원생들이 가락장고, 전통춤 공연을 선보인다.

문의 062-230-6522.

/정상필기자 camus@kwanju.co.kr

## 호남대 대학뮤지컬 페스티벌 수상

## 다매체영상학과 창작뮤지컬상·작곡상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옛 연극영화학과)가 최근 마친 ‘제4회 GM대우전국대학뮤지컬페스티벌’에서 창작뮤지컬상과 작곡상을 수상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과 GM대우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는 ‘그리고 그들은 달린다’(시작)라는 제목의 창작뮤지컬을 선보여 단체상인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고 김서경(4학년)씨가 작곡상을 받았다.

전국 24개 참가 대학 중 예선을 거친 9개 대학이 경합을 벌였으며, 창작뮤지컬을 선보인 학교는 호남대를 비롯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계명대 연극예술과, 서울예대 무용과 등 4곳이었다.

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는 지난해 1회 대회에서도 동상과 작곡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창작뮤지컬에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호남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매학기 한 편의 창작뮤지컬을 꾸준하게 자체 제작·공연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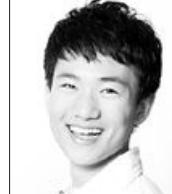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하게 훈련돼 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ju.co.kr

## 동신대, 日 오사카 주민 초청 ‘남도문화체험’

## 교환학생 임마누엘씨 주선



강사를 했는데, 한국어와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나중에 학교에 외국인 조청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일본인들과 학교 측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6일 일본인들과 재회해 직접 동신대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어 문법 강의, 한복입기 및 다도 교육, 전주 한옥마을과 광성 기차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임씨는 “아르바이트로 한국어

가능했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1년간 일본에서 생활한 대학생이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인연으로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화제다.

동신대는 지난 6일 일본 오사카 주민 13명을 초청, 19일까지 2주 동안 ‘남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본인들이 동신대까지 온 것은 이 학교 의상디자인학과 3학년 임마누엘(20·사진)씨가 있어

2007년 2월부터 1년간 일본 오사카 모모야마대학 경영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알게 된 제자(?)들이다. 대부분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주부들이며, 전직 교장 등도 섞여 있다.

임씨는 “아르바이트로 한국어

가능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오사카 주민 상당수는 임씨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1년간 일본인들과 재회해 직접 동신대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어 문법 강의, 한복입기 및 다도 교육, 전주 한옥마을과 광성 기차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미가박스**

구.현대약국사거리 ◆예매 1544-0600

1관 모던보이 (12세)	초고급관
2관 고고70 (15세)	
3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4관 맘마미아(12세)/미스터리그리너스(15세)	
5관 트릭 (18세)	
6관 비동 (18세)	
7관 영화는 영화다(18세)/바빌론 A.D(12세)	
8관 이글아이 (12세)	
9관 더클럽 (18세)	

\*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경감요금 부과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모던보이 (12세)
2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3관 영화는 영화다(18세)/맘마미아(12세)
4관 트릭 (18세)
5관 이글아이 (12세)
6관 바빌론 A.D (12세)
7관 신기전 (15세)

www.entercinema.co.kr

\* 노고관인 특별-목욕 주차장 300대 ~금토 실어상영



한화시티시네마 www.joycity.com 1588-7941

상극장-하늘관

상무관(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관(무역蝎子면)

1관 헬보이 (12세)/더클립 (18세)
2관 고고70 (15세)
3관 바빌론 A.D (12세)/트릭 (18세)
4관 맘마미아 (12세)
5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6관 신기전 (15세)
7관 이글아이 (12세)
8관 바빌론 (18세)
9관 모던보이 (12세)
10관 이글아이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아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페스티벌 시우미(오전9시~오후1시)

1588-7941

상동한강 복합 상영관

•영화관 1층 1관

•영화관 2층 2관

•영화관 3층 3관

•영화관 4층 4관

•영화관 5층 5관

•영화관 6